

전남도, 전국 최초 원스톱 스마트관광 실현한다

관광플랫폼 구축 설명회...사업 본격 추진 모빌리티·예약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 제공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원스톱 스마트관광을 실현할 '전남관광플랫폼(J-TaaS·Jeonnam Travel as a Service)'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발주에 따른 제안요청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남관광플랫폼은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점 등의 실

간 예약·결제 등 물론 이를 통합 연계한 맞춤형 스마트관광 편의 제공 등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관광 플랫폼이다. 총사업비는 38억 원 규모다. 통합플랫폼은 ▲스마트 모빌리티 ▲실시간 예약·결제 ▲스마트관광정보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어 등

다국어 서비스도 이뤄진다.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전규격공개를 거쳐, 이달 14일 입찰공고가 시작됐다.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구축을 시작해 11월 1차 대상지인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6개 시군에 대한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사업 논의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과업내용 및 범위 확정을 위한 전문가 과업심의위원회, 정보화사업에 대해 꼭 거쳐야 하는 행안부의 정보화사업 협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등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바라는 IT 업체들에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6개 업체가 참석해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행사는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방향, 제안요청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플랫폼 구축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입찰 참여와 우수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둔 27일 오전 순천시 창평로 순천아랫장을 방문,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설 대비 방역상황 점검

순천 전통시장·여수 요양시설 등 방문...관계자들 격려

김영록 전남지사가 설 명절을 앞둔 27일 오전 아랫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전통시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전남도는 전통시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면서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 자체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힘든 상인들을 위해 시장 이용 활성화를 홍보할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는 '전남행복지역화폐'로

생선·과일 등 농수산물 구매하고, 시장 내 점포를 방문해 상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상인 모두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여수지역 노인요양시설

인 양지요양원을 방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바뀐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전남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도내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전남상인연합회와 시장상인회에서 전통시장 개장 전 상인의 발열체크와 자가검사, PCR검사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28일 영암 신복5일시장과 29일 장성 활룡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방역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문화누리카드' 전 취약계층 확대 운영

시, 내달 3일부터 발급...9만8,589명 연 10만원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0%에게 제공해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대상을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9만 8,589명)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 10만 원씩 지원되며, 전국 2만 4,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재충전제도 시행으로 기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자는 별도 신청없이도 지원금이 재충전된다.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31일 이전인 자, 2021년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재충전이 되지 않는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 모바일 앱, ARS(1544-3412)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이 확대돼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과 관련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하므로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7만 5,000여 명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는 광주문화재단, 자치구와 연계해 더욱 적극 안내하고 문화소외 계층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도, 방문의 해 맞아 '명량대첩축제' 내실 다진다

전남도가 2022-2023년 전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명량대첩축제를 색다른 콘텐츠가 가미된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1월부터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해남군, 진도군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명량대첩축제 성장기 발전을 위한 운영 착수보고회를 지난 26일 해남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명량대첩축제의 정체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이색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협의 내용은 ▲조선수군재건로 44일의 여정을 담은 8개 시군 축제 분위기 확산 프로그램 ▲해전재현 및 출정식에 대한 변경·대체 신규 프로그램 발굴 ▲젊은 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야간 콘텐츠 등이다. 특히 전남도는 명량대첩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해전 재현과 출정식이 매년 비슷한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이번엔 신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 이순신 장군의 역사의식 함양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 축제 개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향후 온라인 개최에 대비한 콘텐츠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명량대첩축제는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로운 방식으로 축제를 설계할 시점이 됐다"며 "MZ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장기 축제 발전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열린 명량대첩축제는 지난해 13회째 열렸으며, 올해는 9월 23-25일 울돌목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로 인한 자금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연세 도산 방지 및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제도다. 광주시는 신용보증기금이 3억 원을 출연해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우대지원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10% 할인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된다. /오선우 기자

전남도-시군, 기후변화 협력체계 강화

환경 분야 부서장 협력회의

전남도가 시군과 기후변화·미세먼지, 물순환 등 환경 분야 업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7일 2022년 환경 분야 주요 업무 정책협력을 위해 시군 환경 분야 부서장과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중점 및 역점시책사업 28건을 소개했다. 이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도비 지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가 지원 등 시군 건의사항 11건을 협의했다. 전남도는 시군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에 예산 지원 건의와 도 차원의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

다. 특히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종합계획, 탄소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 지자체별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예산지원 및 행정절차 등을 설명하고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 현안에 대해 도와 시군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도민이 쾌적한 환경을 체험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이 전 도민에게 확산하도록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